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

‘부처님 오신 날’을 온 국민과 함께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공덕을 기립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출가와 고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만유불성과 동체대비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앞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특히 불교는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하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국난 극복과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선진한국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 가야 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특권과 차별이 발붙이지 못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창의와 다양성이 꽃피고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경쟁력 있는 나라, 질병과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한국,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선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신뢰와 통합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고 결론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은 책임 있게 실천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 노와 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

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화합과 상생을 앞장서 실천해 오신 우리 불교계가 선진한국을 열어 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